

스트라이프가 자주 등장하는 의류

우리는 고전적인 영화라든가 개그를 관람할 때 해적을 상징하는 복장은 모두 백색 바탕에 검정색의 굵은 위사 줄무늬의 T셔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줄무늬는 흰색과 검정색의 굵기는 동일하다. 이러한 배열은 T셔츠나 썸머 스웨터에 자주 등장한다. 바다에 연관된 무니로는 데크 스트라이프(deck stripe) 무늬가 있다. 이것은 여객선 갑판(deck)에 있는 갑판 의자의 덮개로 사용되고 있는 능직으로 백색 바탕에 청색의 굵은 가로줄 무늬이다. 데크 스트라이프는 작업복이라든가 선원복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줄무늬 폭과 바탕의 폭이 같은 폭의 줄무늬를 봉호(棒鎚)(굵은 세로줄 무늬)라든가 블럭 스트라이프(block stripe)라고 한다. 봉호로서 가는 것이 셔츠에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스트라이프의 폭은 4mm 정도이고, 이것을 런던 스트라이프(london stripe)라고 부르고 가로 줄무늬이다. 줄무늬와 줄무늬의 간격이 넓게 벌어져 있는 것,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트럭 스트라이프(truck stripe, double stripe))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프의 폭이 가늘어 셔츠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트럭 스트라이프는 야구의 유니폼에 자주 나타난다.

케이블 스트라이프(cable stripe)는 비틀린 새끼줄 같은 편성 올로 된 줄무늬 모양이다. 새끼줄 매듭 무늬라든가 승편(繩編)이라고 한다. 영국의 traditional pattern의 하나로 거칠고 성글게 짠 따뜻한 감이 있다. 아란편 스웨터(aran knit sweater)라든가 양말의 모양내기에 어울린다. 아란편은 손뜨개질하여 뜨거운 탕 속에서 두들기면 털이 엉켜서 바닥이 치밀(강축융)하게 되

는데, 이렇게 하여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한 스웨터는 바다 선원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여기서 아란 스웨터는 아일랜드의 서쪽 대서양에 떠있는 주변 섬에서 생산된 것으로 크림 화이트보다도 네이비 블루 쪽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색이다.



<그림> 아란편 편성물

케이블 스트라이프는 링스편기라든가 횡편 리브기로 올의 이동과 매듭짓는 편성기법을 이용하여 편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우로 교차하여 넣어 비틀린 발이랑과 같은 새끼줄 상태로 나타낸 것이다. 니트라면 미들 게이지나 로우 게이지의 편침수가 적은 편기로 굵은 편사를 사용하여 거칠고 성글게 편성한 것이 많다. 저지라면 편침수가 많은 하이 게이지의 편기로 가는 편사를 사용하여 편성하고 있다. 케이블 스트라이프는 편성으로 생기는 모양으로 대중적인 소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양을 평편(plain knit)이라던가 플리스 등에 압형(엠보스라고 한다) 또는 발포수지를 사용하여 프린트(발포 프린트)하는 등의 페이크 니트(fake knit, 니트무늬를 넣은 날염제품)가 등장한다.



<그림> 페이크 니트

이들은 언뜻 보아 진짜와 같이 보인다. 이러한 것 외에 울 개버딘이라든가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직물에 플랫으로 프린트 한 것 등이 있어 다양하다.